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에 증시 강세

- 주요 지수 상승: 러셀2000 +1.2%, 나스닥 +0.8%
- 미국-이란 간 종전 기대감 지속.
- 국제유가 2% 하락. 에너지 약세

Summary

미국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함. 나스닥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7% 오른 21,929.83에 거래를 마쳤고, 기술주와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0.54% 상승한 6,591.90으로 장을 마쳤으며,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66% 상승한 46,429.49에 장을 닫음. 이날 증시는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종전 조건이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상승세를 보임. 다만 이란의 강경 입장이 계속 전해지면서 장중 일부 상승폭이 반납되기도 했음.

한편, 국제유가는 2.20% 하락한 배럴당 90.32달러로 마감했으며, 이는 종전 협상 소식에 유가를 억제시키면서 에너지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이에 따라 엑슨모빌과 셰브론 등의 대형 정유주가 하락세를 보임.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말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중동 분쟁이 점차 완화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주요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2월 수입물가가 전달 대비 12% 상승하여 2022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함. 이는 중동 분쟁 발발 이전부터 이미 광범위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었음을 반영함. 또한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주 연속 상승하며 주택 금융 비용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 수준인 6.43%를 기록함. 지난 3주 동안 금리는 켄 34bp 상승하며 담보대출 신청 지수는 전주대비 5.4% 하락해 1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함.

이란 전쟁으로 인해 주요 에너지원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남아있으나, 시장은 대체로 낙관적인 방향을 유지함. 주식시장은 여전히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진전에 주목하고 있으며, 시장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다우 +0.66%, 나스닥 +0.77%, S&P500 +0.54%, 러셀2000 +1.23%)

특징종목

알파벳 (+0.1%)은 구글 AI 스튜디오 빌드가 새로운 멀티빌리언 달러 시장인 바이브 코딩 시장에 진입하면서 소폭 상승했음.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여러 규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장 확장의 긍정적인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마존 (+2.2%)은 AI 칩 개발과 AWS의 성장 모멘텀 덕분에 상승세를 보였으며, Fauna Robotics 인수 소식도 기대를 높임. AMD(+7.3%)는 CPU 가격 인상과 신제품 발표로

인해 주가가 크게 상승했음. 투자자 짐 크레이머의 매수 의견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인텔 (+7.1%)은 소프트뱅크의 20억 달러 투자 발표와 CPU 가격 인상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했음.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0.5%)는 자본 지출 우려로 소폭 하락했으나, 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사업 성장 기대가 존재함.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8.2%)는 지난 법적 문제로 인한 급락 후 회복세를 보임. 마벨 테크놀로지 (+6.6%)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관련된 긍정적인 실적 및 전망이 주가에 반영되었음. 암 홀딩스 (+16%)는 AI 칩 출시 및 전략적 변화로 주가가 크게 상승해 시장의 주목을 받음. 전반적으로, 기술 주식들이 AI 및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과와 기대감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으며,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4.33%로, 전날보다 0.07% 하락했음. 이는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협상 가능성에 따른 긴장 완화 기대감이 성장 우려를 완화시켰기 때문임. 다만 최근 국채 금리 상승세를 반영해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주 연속 상승하며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 미국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3주 동안 누적 34bp 상승하자, 주택담보대출 신청 지수는 전주 대비 5.4% 하락하여 1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함.

달러인덱스는 99.63으로, 시장이 여전히 미 중동 지역의 갈등 해소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음. 외환 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은 1.1558로, 0.42% 하락함. 달러/원 환율은 1,500원 수준을 유지하며 달러 대비 약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가격이 하루 동안 1.15% 하락한 91.29달러를 기록함. 이는 미 군과 이란 간 갈등 완화 기대가 원유 공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브렌트유 역시 비슷한 경향으로 1.30% 하락한 103.13달러를 기록 중임. 천연가스는 하루 동안 1.30% 상승해 2.9814달러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보였음. 금속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0.70% 상승한 4504.38달러를 기록,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줌. 반면, 은은 변화가 없어 현재 71.20달러 수준임. 농산물 시장에서는 대두와 밀 가격이 각각 1.60%와 1.61% 상승해 글로벌 수급 변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